

연변 조선족 현대 소설에 나타난 갈등 구조 연구

한 승 옥*

目 次

1. 서 論
2. 만주체험의 소설화 양상
3. 만주체험 소설화의 예비적 고찰
4. 연변 현대소설에 나타난 갈등구조의 특징
 - 1) 이근전의 「고난의 년대」
 - 2) 김학철의 「격정시대」
5. 평가 및 한국문학사 수용 문제

1. 서 論

본 발표는 연변 조선족 현대 소설에 나타난 갈등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연변 자치주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의 지난한 삶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귀중한 체험을 문학화한 소설을 문학사에 수용함으로써 우리 문학사의 폭을 보다 넓히기 위해 준비된 것이기도 합니다. 한인 자치주는 정치, 문화, 사회, 역사적으로 다층적인 의미를 지니는 지역입니다. 만주로 통칭되는 이 지역은 멀리서 고구려의 웅혼한 기상이 살아 숨쉬는 우리의 옛 영토이며, 한 때는 민족 상실의 고통을 추스렸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구한말부터는 궁핍을 견디지 못한 이주민이 남의 땅에 정착하여 뿌리내리려는 피나는 노력과 그에 따른 좌절과

*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투쟁의 역사가 아로새겨진 지역이기도 합니다. 일제가 우리 영토를 강점했을 때 줄기찬 저항으로 한민족이 민족의 얼을 지키기 위해 최후의 보루를 쌓았던, 그리하여 우리 민족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의지처가 되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서 삶을 영위해야 했던 한민족은 중국으로부터는 이민족이라는 천시를 받아야 했고, 또한 조국으로부터는 외면당하거나 극도의 소외감을 맛보아야 했던 쓰라림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간난의 역경 속에서도 곳곳히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나감으로 하여 지금은 ‘민족습관, 언어, 문화, 여흥까지 그대로 보유한 박물관 같은 곳’¹⁾이란 평가까지 받게된 민족 문화 유산의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런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 지역 문인들이 창출한 문학은 남북한에 거주하는 문인들이 창출한 그것과는 다른 그들만의 독특한 성질을 지닌 문학을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한 평자의 말대로 ‘북한 문학에서처럼 경직되지 않았고, 남한 문학에서처럼 서구문학에 깊이 세례받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²⁾ 이들 연변 한인 문학이 지니는 특수성은 주제를 통해 그것이 꺾진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대강 다음과 같은 세 경향으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가 항일 민족 투쟁, 둘째가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굳건한 의지의 실현, 셋째가 낯선 땅에 뿌리내리기의 고충을 주제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³⁾ 이들 주제 중 민족 정체성 확립과 낯선 땅에 뿌리내리기의 갈등은 이미 2,30년대부터 60년까지 여러 작품을 통해 문학적으로 형상화시킨 바 있으나, 첫번 주제인 항일 민족 투쟁사는 기존의 작품이 다루기는 하였으나 체험의 미비로 인해 철저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날조된 사실의 조작성으로 인해 그 진실성이 확보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연변 자치주의 한인 현대 소설을 다루는 것은 민족 문학의 공백이나 다름 없었던 항일 민족 저항의 실태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이들 연변의 현대 소설이 오로지 항일 저항만을 다루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국 땅에서의 다양한 양태의 민족의 생존과 이민사의 고충을 소재로 한 것이 상당 부분입니다.

1) 좌담-김열규, 허세욱, 오양호, 「대륙문학,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대륙문학 다시 읽는다」(대륙연구소 출판부, 1992년), 21쪽

2) 김현선, 「재만 한인문학 연구」, <국학연구> 제2집, (국학연구원, 1988년), 205쪽

3) 김열규, 전계서 <좌담>, 24쪽

다만 여기서는 그 중 우리 문학사 기술에 특히 유익한 부분만을 강조하여 말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본 발표는 다음과 같이 네 부분으로 고찰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문학사에서 좁게는 간도체험으로, 넓게는 만주체험으로 언급되는 이들 체험이 어떤 양태로 소설화되었는지를 세 부류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단계로 간도 체험을 소설화시킨 예비적 고찰로 이광수와 안수길의 작품을 골라 이에 나타난 갈등 구조를 살펴 보려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연변 현대소설을 분석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해당합니다. 이런 예비작업을 거친 후 연변 조선족 현대 소설의 대표작이며, 성공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근전의 장편소설 「고난의 년대」와 김학철의 전기적 성격을 지닌 장편소설 「걱정시대」를 분석하여 그 소설에 나타난 갈등구조를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들 연변 현대 소설이 지니는 문학사적 의의를 평가하여 우리 문학사 수용에 따르는 새 문제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2. 만주체험의 소설화 양상

만주 체험을 소설화 한 양상을 크게 대분하면 다음과 같이 세 경향으로 집약될 수 있겠습니다. 첫째가 관찰자 입장에서 쓴 소설입니다. 이들 소설의 창작 주체는 단순한 여행자이거나 아니면 기사를 취재하기 위한 기자이거나, 아니면 당대의 절실한 분쟁지였던 간도를 소설화할 목적으로 소설 취재차 다녀간 후 그것을 문학화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이 부류에는 비록 만주에 체류하였더라도 단지 주재기자의 심정으로 객으로 머물렀던 창작 주체도 이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이광수가 전자의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습니다. 이광수는 일찌기 1930년도에 동아일보 편집국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동아일보에 「삼봉이네 집」을 연재하였는데, 이것은 그의 신문기자적 간접 체험이거나 피상적 관찰로 이루어진 작품이라 하겠습니다. 간도를 단순한 여행이나 전선의 위문단으로 방문한 경우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김동인, 임학수, 박영희 등이라 하겠습니다. 이들은 친일 어용 문학단체인 조선문인협회(회장 이광수)의 북지(北支) 위문단 일원으로 간도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와 때를 앞뒤로 하여

많은 문인들이 만주시찰을 하였는데, 이기영, 장혁주, 이태준, 노천명, 백철 등을 위시하여 1943년에는 이무영, 정비석, 정인택 등도 간도를 현지 답사하였습니다.⁴⁾ 물론 이들이 다 이 체험을 소설화 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쓴 글은 단순한 관찰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피상적이거나 왜곡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단순한 관찰자나 여행자 입장이 아니라 이주하여 만주에 살다가 귀국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서해를 비롯하여 강경애, 안수길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 문학사에서 간도체험이 소설화 되어 문학적 공감을 불러일으킨 예는 이들이 창작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최서해의 「탈출기」, 「기아와 살육」, 「박들의 죽음」, 「큰 물진 뒤」, 「그믐밤」, 「아내의 자는 얼굴」, 「가난한 아내」, 「二重」, 「누이동생을 따라」 등이 그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강경애는 1931년 「파금」으로 데뷔한 뒤 만주로 건너가 약 10년간 거주하면서 우리나라와 만주를 소설공간으로 한 작품을 10여 편 발표하였는데, 1931년~1934년 동안에 「파금」, 「동정」, 「축구전」, 「소금」, 「인간문제」 등을 통해 이념에 의존하여 일제나 만주국에 저항하는 자세를, 1935~1938년 동안에는 「모자」, 「지하촌」, 「산남」, 「어둠」, 「마약」 등을 통해 빈궁의 참상과 배신이 자행되는 세태를 고발하는 자세를 나타내 주었습니다.⁵⁾ 안수길은 1932년 간도에 있는 소학교에 교편을 잡으면서 간도와 인연을 맺기 시작하여 1945년 건강이 악화되어 귀국하기까지 「만선일보」에 근무하면서 만주를 소설공간으로 하는 많은 소설을 남겼습니다. 안수길은 만주로 이주한 도시와 농촌을 소재로한 소설을 많이 남겼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새벽」, 「벼」, 「목축기」, 「북향보」, 「장」, 「차중에서」, 「새마을」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안수길은 그후 1967년에 그의 과거의 간도 체험을 종합하여 대하소설로 형상화시킨 「북간도」를 출간하여 당대에 격찬을 받은 작가이기도 합니다.

다음 세번째 경우가 지금 현재까지 만주에 살면서 간도체험을 우리말로 소설화 하는 작가들입니다. 지금의 연변 자치주 현대문학사에 기록되는 작가들만 하여도 김창걸을 비롯하여, 본고의 주대상이 되는 김학철과 이근전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4) 김운식, 「염상섭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644쪽

5) 채훈, 「재만한국문학연구」, (깊은샘, 1990)

연변에 거주하는 문인으로 시인과 극작가까지 포함하면 많은 문인들이 거론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소설가만 다루기 때문에 이들 여타 문인들은 제외하였습니다.

김창걸은 6, 7세경에 만주로 이주하여 용정에서 중학교를 다녔으며, 1928년경에는 소련의 연해주, 동북만주, 서울과 북부지방을 방랑하다가 1934, 5년경에는 간도로 돌아가 집에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간도 동명학교 교원노릇도 하면서 1938년에 만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하여 작가로 데뷔하였습니다. 그후 1943년 신문사의 청탁으로 대동아전쟁을 고무하는 글을 써달라고 하여 그것을 써주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붓을 꺾었다고 하였으며, 그의 작품으로는 「무빈골의 전설」, 「소포」, 「두번째의 고향」, 「지새는 밤」, 「어머니의 반생」(원명〈밀수〉), 「강교장」 등이 있습니다.⁶⁾

김학철은 1916년에 원산시에서 태어나 원산과 서울에서 수학하였으며, 1936년에 중국 상해로 망명하였습니다. 중국에 망명하여 1937년부터 그 이듬해까지 중앙육군 군관학교에 다녔으며, 군관학교를 졸업한 그는 무한에서 조선의용군에 참가하여 분대장직무를 맡아 항일운동을 벌였습니다. 1940년 공산당에 입당하였으며, 1941년에는 태항산 팔로군에 들어가 항일 유격대로 활동하였습니다. 1941년 태항산지구 호가장전투에서 한쪽다리에 총상을 입고 체포되어 일본에 압송되어 해방이 될때까지 옥고를 치루었는데, 이때 호가장전투에서 입은 총상이 악화되어 왼쪽다리를 절단하였습니다. 해방후 서울에 왔다가 1946년에 월북하여 북한에서 <노동신문>기자, <인민군신보> 주필로 활약하면서 많은 단편과 노래 가사 및 번역 작업을 하였습니다. 김학철이 다시 중국에 건너간 것은 1951년 2월입니다. 1952년 연길시로 이주하며, 여기서 많은 작품을 창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그의 생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1957년 반우파투쟁에서 반동작가로 몰려 문단에서 쫓겨나 문화대혁명전까지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다. 문화대혁명기간에는 미발표작인 「20세기 신화」가 문제가 되어 10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4인무리>가 타도되자 1980년 12월 무죄석방되어 그때부터 다시 불타는 정열로 창작에 몰두하여 「격정시대」와 같은 기념비적인 작품을 창작하게 됩니다.⁷⁾

6) 채훈, 상계서

7) 조성일, 권철 주편, 「중국조선족문학사」(연변인민출판사, 1990년)

이근전은 1929년 한국 자강도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이후 1938년에 이근전 일가는 살길을 찾아 지금의 중국 길림성 서란현 북대촌 반가위로 이주하였습니다. 1943년에 소학교를 마치고 집안형편 상 중학교에는 진학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부친을 대신하여 부역과 품을 팔며 집안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해방이 되자 이근전은 동북 민주련군에 참여하며, 그 후 무장공작대 및 토지개혁공작대로 활약하기도 하였습니다. 1948년에는 중국 공산당에 참여하게 되며, 이때 부지런히 공부하여 한국어로 글을 쓸 수 있는 실력을 닦았다고 합니다. 이근전이 문단에 데뷔한 것은 1952년 단편소설 「화물차」가 길림성 창작상을 받게 되면서 부터였습니다. 1953년부터 1958년까지 이근전은 <길림일보>와 <연변일보>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이시기에 이근전은 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 부주석으로 활약하면서 다수의 작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근전이 50년대 남긴 작품으로는 「사소한 문제」, 「화물차」, 「홍수가 질 때」, 「김병일」, 「참된 사랑」 등이 있고, 60년대에는 중편소설 「호랑이」, 단편소설 「박호」, 「봄날의 이야기」, 「어부의 즐거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첫 장편소설인 「범바위」가 발표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이근전은 70년대 후반부터 더욱 왕성한 창작 의욕을 보였는데, 「전우사이」,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아재」, 「백산행」, 「김순희」, 「왈패 처녀」, 「한많은 세상」, 「인생길」, 「장인」 등 단편소설을 발표했고, 장편소설 「범바위」를 대폭 수정하여 재판하였으며, 장편소설 「청산의 눈물」, 「고난의 년대」가 출판된 것도 이때였습니다.⁸⁾

연변 조선족 한인 문학이라면 위의 세 경향 중 세번째에 해당하는 연변 현지 거주민이 쓴 소설을 주 대상으로 삼아야 하겠지만, 이들 소설의 갈등 구조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찰자적 입장에서 쓴 소설과 귀국하여 현지적 체험을 미적인 거리를 두고 재구성한 소설도 예비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그 대표적인 예로 첫번 경우로 이광수를 두번째 경우로 안수길을 택하였습니다.

8) 김호룡, 「이근전론」, <중국조선족 문학사>(연변인민출판사, 1990년)

3. 만주체험 소설화의 예비적 고찰

1) 이광수의 「삼봉이네 집」

이광수의 소설 중 우리 민족의 간도 체험을 다룬 소설로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1930년도에 <동아일보>에 연재한 「삼봉이네 집」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주인공 삼봉이가 국내에서 박진사집 소작농이었다가 박진사 아들의 사업 실패로 그것마저도 떨어져나가 자기 동생 을순이를 노참사네 집에 들여보내 그 덕으로 근근히 삶을 이어가다가 노참사가 을순을 강제로 욕보이려하자 이에 격분하여 노참사를 구타한 후 오히려 삼봉이가 을순을 첩으로 들여놓고 폭력으로 위협하여 돈을 갈취하려 했다고 노참사가 자기의 죄를 삼봉이에게 덮어씌워 감옥에 갇혔다가 변호사 유정석의 도움으로 풀려나는 장면까지가 전반부이고, 이후 무일푼으로 서간도로 이민하여 먼 친척뻘되는 김문제에게 버려진 땅을 속아서 구입한 후 개간하여 풍작을 이루었으나 곡가가 폭락하여 추수한 곡식은 한알도 남김없이 김문제에게 빼앗기고, 오히려 빚만 더 지게 되자, 결국 호로야 돼지몰이로 전락하였다가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생활을 하다가 동생들의 구출로 탈출하여 중국인 지주를 습격하면서 공산주의자 유정석의 조언으로 구조적 모순을 깨닫는다는 작품의 결미까지가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이 작품에 나타나는 갈등구조는 삼봉이를 중심으로 한 선량한 농민과 이들을 괴롭히는 지주와 일제, 중국인과의 대립구조입니다. 선량한 농민 편에 서는 인물로는 삼봉이를 비롯하여, 삼봉이의 어머니, 그의 동생 을순이, 서간도로 이민하여 고생하다가 삼봉이가 살인 누명을 쓰자 충격을 받아 낙태를 하고 비극적으로 죽어가는 삼봉의 처, 감옥으로 호송되는 삼봉을 따후령 길목에서 구출하는 오봉과 금동이 등입니다. 이들 선량한 농민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인물군으로는 파렴치한 노참사를 비롯하여 노참사에게 첩을 대주는 역할을 하는 박주사, 노참사를 위증시켜 삼봉이에게 고통을 주는 조선인 윤변호사, 일제에 붙어 한민족을 괴롭히는 이검사, 일제의 하수인 조선인 순사, 서간도에서 삼봉이네를 사기로 더욱 몰락시키는 김문제, 을순이 오빠를 구하기 위해 김문제에게 몸을 팔아 마련한 돈을 가로채버리는 박통사 등은

모두 당대의 한민족을 더욱 도탄에 빠지게 하는 인물들입니다. 「삼봉이네 집」은 이들 선량한 인물군과 친일적인 악랄한 인물들이 대립하는 구조로 짜여져 결말에서 조선 민족의 몰락 원인이 개인의 잘못에 있지 않고 당대의 식민지 현실의 구조적 모순에 있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삼봉이네 집」의 이런 결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첫째, 이광수의 공산주의에 대한 태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산주의자 유정석을 통해 삼봉이가 갈 길을 암시받은 것으로 되어, 삼봉이가 공산주의자가 되고, 이 소설이 공산주의화되는 농민의 투쟁과 그 필연성을 역설한 것 같지만, 실에서는 그 반대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의 살인과 폭력이 동기로 보면 한민족에게는 정의가 되나, 결과적으로는 간도의 농민이 이를 계기로 농노화되는 결과를 낳게 됨으로 하여, 충동적, 비이성적인 폭력, 살인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여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광수의 다음 작품인 「흙」에서 제도내적, 합리적, 비폭력적, 도덕적 개선을 역설하여 그를 실천적으로 행하는 결과도 이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필연의 결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투쟁의 대상이 중국인이라는 데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일본이 적극적으로 중국 확산 정책을 쓸 때였습니다. 중국인의 땅에서 정착해 살려는 우리 민족의 생존을 몰아내려는 중국인들의 방어가 당시의 문제로 부각되었고, 그들과의 싸움이 생존권과 직접 연관된 것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당대의 우리의 적은 일제였습니다. 당시 신문소설이란 입장에서 일제에 대한 노골적인 항거를 표시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일제는 문제시하지 않고 중국만을 일방적으로 적대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소설 자체에서도 시종 삼봉이가 중국인으로부터 호의를 받고 비호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갑자기 산으로 들어한 후 중국인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비록 한국인을 괴롭히는 중국인을 상대로 하고, 당시 악덕 지주가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겠지만, 이 소설 자체로 보아서는 소설 결구상의 필연성에 있어 약점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⁹⁾

9) 참고, 「이광수의 농민소설론」, 〈이광수연구〉, (선일문화사, 1984), 211쪽

2) 안수길의 「북간도」

안수길의 「북간도」는 1959년 그 제1부가 「사상계」에 연재되면서 기념비적 노작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세인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소설입니다. 1963년까지 1, 2, 3부가 끝나자 평자들은 하나같이 극찬을 거듭하였습니다. 이어 1957년 전작으로 4, 5부가 완간되자 해방 이후 현대소설사가 갖는 귀중한 자산으로 일컬어지면서 웅대한 스케일과 정확하고 박진감 넘치는 필치, 그리고 민족성의 본질을 추구한 작품으로 문학사적 의의가 인정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북간도」 제1부는 1870년 후부터 1900년 전후까지 대략 30년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도 개척사의 초창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2부는 1900년부터 1909년까지 대략 10년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도에 이민한 조선 백성들이 유랑민으로 다시 전락하는 참상을 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청의 기치아래 강한 민족 정신과 주체 의식을 가지고 간도를 수호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3, 4부는 1909년부터 1920년 전후까지의 10여년간으로 일본이 만주까지 침략해 들어옴으로 해서 반청에서 반일로 진로가 수정되는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적대시하였던 청과 손을 잡고 공동으로 일제에 저항하는 공동투쟁의 장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제5부는 1920년부터 1945년까지 약 25년간 만주 일대에서 독립투쟁을 하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역사적 사실이 사실 그대로 많이 소개되기도 합니다.

「북간도」는 한마디로 말하여 민족주체성 회복이란 당위성을 실현하는 이한복 일가와 이에 대응하는 기회주의자 최철성 일가와 현실주의자 장치덕 일가의 세 가계가 대립적으로 배치되어, 중심 축인 이한복 일가의 당위성 실현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가를 보여준 가족사형 대하소설입니다. 「북간도」에서 중심 축이 되는 가계는 역시 이한복 가계입니다.

이한복의 선조가 이 지방에 처음 발을 들여 놓은 것은 1432년(세종 12년) 김종서가 육진을 개척한 후 강행한 이민 정책에 따라 경상도 지방에서 부령 지방에 온 것이 그 시초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복은 혈통상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복의 호방한 성격은 할아버지의 떠돌이 운명으로 말미암은 것

입니다. 그는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가업의 이단자요, 敗家者입니다. 한대를 건너서 다시 패가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한복 가계를 가계내적 대충구조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할아버지와 한복이가 한 축이 되고 증조할아버지와 장손이 상대 축이 됩니다. 전자는 농토를 지키기 보다는 밖으로 나가 활동하기를 선호하는 외부지향형 인물들이고, 후자는 땅을 지키며 한 곳에 정착하여 살기를 희망하는 보수지향형의 토착적 인물입니다. 이 두계열의 인물군 사이를 진자 운동하듯 왔다 갔다하며 갈등하는 인물로 창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창윤이는 장손 할아버지의 토착성과 아버지 이한복의 호방성, 즉 외부지향형의 당위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제 1부에서 제 3부까지 이 작품이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은 이러한 갈등이 또 다른 축인 기회주의자인 최철성일가와 현실주의자인 장치덕 일가와 의 갈등과 맞물려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철성 일가는 이 작품에서 이한복 일가와 세구(世仇) 지간으로 설정되어 있어 근원적인 갈등을 불러 일으킵니다. 최철성 영감은 비봉촌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청국에 입적하여야 한다는 계산을 누구보다도 빨리하여, 비봉촌 사람들이 열외됨이 되는 것을 가장 큰 수치로 알았을 때, 자기 아들 삼봉이를 입적시켜 변발혹복을 감행한 것은 그의 현실 계산이 얼마나 철저한 것인가를 웅변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한복 영감이 창윤이 변발당한 것을 보고 당신 손으로 창윤의 머리를 자른 후 모로 쓰러져 절명하는 것과는 좋은 대조를 보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갈등 구조는 이한복 가계와 최철성 가계의 갈등 양태에서 보다 선명히 드러납니다.

제4부로 넘어오면서 부터는 주인공은 정수로 바뀝니다. 정수는 작품이 끝날 때까지 작품 내적으로 주동적 역할을 합니다. 정수는 소년의 몸으로 독립 무장 투쟁에 적극 참여하여 맹활약을 합니다. 「북간도」는 이한복의 외세지향적 의지와 이창윤의 토착 안주와의 갈등, 정수의 민족적 독립 투쟁의 실천적 행동과 그에 따르는 고난과 역경에서 야기되는 갈등이 주축을 이룹니다. 이 갈등은 모두 민족의 뿌리내리기와 민족 주체성 확립의 방향으로 사건이 진전되면서 모든 갈등이 해소됩니다. 다만 문제는 정수가 갑자기 독립 운동의 주요한 핵심 부서에 뛰어든다는 점입니다. 물론 중개자인 주인태 교사가 있지만 어린 소년의 눈이나 행동을 빌어 거대한 역사적 진실을 소설화시키는 데는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가계 혈통상 정수

가 독립 운동에 가담하는 것은 자연스러울지 모르나 정수가 그만큼 커다란 역사적 중임을 맡기에는 너무나 뼈대가 허약하다 하겠습니다. 4,5부에서 정수가 하는 역할이 급조된 느낌을 받는 것도 모두 이런 허약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5부가 1,2,3부에 비해 파탄을 면치 못했음은 인물에 비해 역사나 이념이 압도적으로 그 위력을 휘둘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정수가 소설의 결말에서 현실 순용형의 교사가 되어 플죽은 모습으로 제시되는 것도 소설의 일관성이란 의미에서 볼 때 약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간도」가 지니는 파탄과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일과 역사적 변전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근전의 「고난의 년대」와 김학철의 「격정시대」가 그 실체라 하겠습니다.

4. 연변 현대 소설에 나타난 갈등구조의 특징

1) 이근전의 「고난의 년대」

「고난의 년대」(상부 1982년, 하부 1984년 발표)는 1899년부터 1945년까지 간도를 무대로 펼쳐지는 우리 민족의 고난에 찬 뿌리내리기와 줄기찬 항일투쟁사를 연변에 거주하는 동포의 시각에서 기록한 이민사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긍정적 인물군과 부정적 인물군¹⁰⁾이 대립하는 갈등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긍정적 인물군은 2대에 걸친 박천수 일가와 그에 동조하는 인물들이며, 부정적 인물군은 오영길 일가와 그와 연관되는 매판 자본가와 친일 아부파들입니다. 이 소설은 이들 두 대립항의 인물들이 갈등하다가 작품 결미에서 조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됨에 따라 긍정적 인물들이 새로운 투쟁을 기약하는 것으로 종결되어 갈등이 해소됩니다.

이 소설이 내포한 갈등 구조의 두 중심 축은 박천수와 오영길입니다. 이들은 1899

10)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 부정적 인물군이란 말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 말하는 긍정, 부정 뿐 아니라 민족주의 및 인간 본연의 가치에 있어서의 긍정적, 부정적 가치 개념을 통칭하는 말이다.

년 같이 생명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 간도로 이주해 온 이주민들입니다. 도강하다가 발각되어 허둥지둥 서로 갈라져, 박천수는 중국인 왕덕후의 도움으로 천수동에 정착하여 땅을 일구기 시작하며, 뒤늦게 천수동으로 들어온 오영길은 청의 지주인 랑청산의 마름이 되어 그의 소작료를 걷는 하수인이 되며, 농민들에게 고리대금과 장리벼를 놓아 치부에 혈안이 되는 야비한 인물입니다. 박천수는 간도 땅에 이주해 오는 불쌍한 동포들에게 의지처를 마련하여 주며 이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나, 오영길은 청과 일제에 빌붙어 자신의 영리를 채우는데만 급급합니다. 이들 두 인물은 출발부터가 하나는 민족 자주성 회복을 위한 민족자존과 그를 위한 투쟁의 길로, 다른 하나는 민족 말살의 반민족적 이기주의적 민족패망의 길로 향하게 됩니다. 이들의 다음 세대에도 이러한 경향은 긍정적인 측면은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은 부정적인 채로 대가 이어집니다. 박천수의 아들 박운민은 계급모순에 대한 항거로 지주와 도윤을 습격하여 농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권익을 찾는데 반해, 오영길의 아들 오창덕과 오창수는 친일의 길로 치달아 오히려 우리민족을 수탈하고 괴롭히는 쪽으로 성격이 형성되어 갑니다. 오영길의 아들 오창덕은 기생집을 경영하여 부패한 방법으로 축재에 혈안이 되고, 오창수는 일본 육사를 나와 헌병 대위가 되어 우리 민족의 탄압에 앞장서게 됩니다. 박천수의 아들 박운민은 아버지가 죽자 그를 계승하여 독립 투사가 되는데 반해, 오영길의 두아들은 친일파가 되어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데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영길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청국을 위해서는 변발역복을 서슴치 않고, 일본사람에게 잘보이기 위해서는 일본 옷으로 갈아 입는 것도 마다 않는 극도의 반민족적 행위를 자행하는 파렴치한입니다. 이들 부정적인 인물군에는 매판자본가 오영길 일가를 비롯하여 일본을 등에 업고 부를 축적하는 김경필과 청국을 등에 업고 치부를 하였다가 일본 세력이 팽배하자 양심상 친일을 포기하여 영락하는 최영세가 있습니다. 이들 자본가들은 모두 반민족적 행위를 자행하는 인물들입니다. 다만 양심에 꺼려 친일을 포기한 매판자본가인 최영세의 아들 최명준이 크게 깨달은 바 있어 조그마한 장사를 하면서 독립군에게 군수품을 대는 민족적 인물로 바뀌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고난의 년대」에는 이들 부정적 자본가들 말고도 정보를 캐내 일본에 제공하는 윤민이 재직하는 자선학교 교장 이광국이 있으며, 일제의 앞

잡이 김목사, 오영길을 등에 업고 갖은 비행을 저지르는 마상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제의 주구로 민족에게 폭압을 일선에서 자행하는 일본인으로 총영사 스즈끼, 경찰서장 고자까, 특무대원 고산, 구제회의 오노가 버티고 있어 민족 주체성 회복을 위해 투쟁하는 우리 민족을 탄압하는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 중 오영길의 딸 오순희는 처음에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부정적 인물군에 속해 있었으나 차츰 모순을 깨닫고 민족적인 긍정적인 인물군으로 편입되어 나중에는 누구보다도 강열한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의 해결을 위해 반봉건 반제국주의 투쟁에 앞장서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어 특히 주목할만 합니다. 이 소설 중 부정적 인물군에서 긍정적 인물군으로 변모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순희라 하겠습니다. 오순희는 처음 모순을 깨닫고 나서 교육자가 되어 교육을 통해 모순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박운민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것이 근본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투쟁 전선에 직접 뛰어들어 뼈라를 제작하다 투옥되는 인물로 나중에는 오히려 남편보다도 더한 투쟁 의욕을 보이는 강열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오순희와 같이 여성이면서 반민족적 모순을 극복하고 일제에 항거하는 인물로는 김벽선과 김성녀가 있습니다. 김벽선은 의병대 두령이었던 아버지를 잃고 기생으로 몰락하였으나 이를 통해 일제의 정보를 수집하여 항일 유격대에 제보하는 애국적 행위를 보여줍니다. 김성녀는 박천수의 아내로 남편이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투쟁하다가 죽자, 그 대를 잇는 아들을 조금도 주저없이 남편의 뒤를 따라 투쟁의 일선으로 내보내며, 며느리가 옥에서 곳곳이 견딘 것을 격려하는 등 민족 자주성 회복을 위한 항일 투쟁에 어머니로서나 여성으로서 심약한 면을 극복하고 즐기찬 투쟁의욕을 견지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박천수와 박운민 2대의 행위 행적을 추적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 민족이 간도에서 뿌리내리기와 반봉건, 반제 투쟁사가 됩니다. 기아를 견디지 못해 죽음을 무릅쓰고 도강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 작품은 박천수가 천수동에 정착하면서 간도땅의 고난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간도로 이주하면서 두아들을 잃고 딸마저도 수토병으로 잃게 된 박천수는 그에 굴하지 않고 농토를 일궈가면서 정착을 시도하나, 뒤늦게 온 오영길의 악랄한 행위로 오영길은 부를 축적해가는 반면, 박천수는 점점 궁핍한 극한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박천수는 그래도 오영길에 구걸

하지 않고 싸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투쟁을 전개합니다. 농민이 단결하여 저항한 이 싸움에서 농민은 승리합니다. 이것은 자연발생적인 투쟁으로 1913년에는 도운공서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하여 도운 도빈을 굴복시킵니다. 그러나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 농민의 요구조건을 들어준다고 회유하였다가 나중에는 이들을 모두 잡아 가둡니다. 이에 자연발생적인 투쟁이 한계가 있음을 깨우치고 일정한 조직과 지도자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오영길은 용정으로 도피하여 오노에게 피신하여 일본영사관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 지점에서 농민들은 적이 단순한 청인이 아니라 일제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후 박천수는 오영길의 모함으로 아들 윤민과 함께 2년간 감옥에 가게됩니다. 박천수는 병에 시달리다 죽게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박윤민이 투쟁의 일선에 나서게 됩니다. 간도에서도 1919년 3·1운동은 일제에 항거하는 투쟁에 주요한 계기가 됩니다. 박윤민은 1920년 천도중학교 역사선생이 됩니다. 새로운 방일 조직이 형성되고, 동만성 위원회에서 파견된 이진과 안경림의 도움으로 박윤민은 항일 지하 조직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때 오순회는 간호원으로 들어가 직접 뼈라를 제작하게 됩니다. 30년대로 넘어오면서 항일 조직은 소작료 투쟁인 추수투쟁과 고리대금과 장리벼 투쟁인 춘황투쟁을 시도합니다. 박윤민은 농민 협의회 회장이 되어 본격적인 반일 투쟁에 앞장서게 됩니다. 1934년 동북인민혁명군이 건설되고 1935년에 코민테른 7차대회에서 반파쇼인민전선이 결성됩니다. 이로써 만주 반일 민족통일전선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를 기점으로 1936년에는 그 이전의 동북인민혁명군이 동북항일연합군으로 바뀌게 되어 중국과 우리민족은 광범위한 항일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시기에 박윤민이 의병단에 파견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1940년까지 계속됩니다. 1940년경에는 자체 조직의 취약점과 악랄한 일제의 탄압에 못이겨 소련과 중국 국경으로 근거지를 옮기거나 연안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박윤민도 연안으로 피신합니다. 그후 해방이 되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오순회는 뼈라 제작 사건으로 체포되어 서대문 감옥소에 투옥되었다가 해방이 되자 역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 소설은 민족 독립투쟁으로 흩어졌던 박윤민과 오순회가 재회하는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오순회가 다시 투쟁을 위해 떠나는 지점에서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고난의 년대」는 민족 주체성 회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생성적 인물과 자신의 안일과 향락을 위해 반민족적 행위를 서슴치 않는 반민족적 부정적 인물들이 대립하는 갈등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결말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도 사회주의 이념을 소설화하는 양식의 한 패턴이라 하겠습니다. 한계점으로 지적될 것이 있다면, 중국 동포의 입장에서 쓴 소설이기에 중국 공산당에 시각을 고정시켜 그를 탈피하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반공 항일 조직과의 연계나 존재를 그릴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나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출판된 소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요구는 무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 자체로만도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2) 김학철의 「걱정시대」

「걱정시대」(1986년)는 김학철이 작품 후기에 밝혔듯 ‘소설의 형식을 빌어서 엮어놓은 전기문학’입니다.¹¹⁾ 후기에서 작가는 이 소설을 쓰게 된 동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민족의 자랑스러운 아들딸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망각의 흐름모래 속에 묻혀버리지 않게 하려고 나는 총이 아닌 붓을 들고 또 한바탕 분투를 해야 하였다. 일찌기 태항산의 험준한 벼랑길을 돌아오르고 또 미끄러져내리며 나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였었다.……나중에 내가 살아남아서 전우들의 피흘린 역사를 기록하게 되리라고는.’ 자못 비장하기까지한 독백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후기에서도 말했듯 작가가 가장 관심을 기울인 부분은 태항산 전투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걱정시대」는 태항산전투가 전편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서만 다루어집니다. 오히려 앞서 말한 전기문학에 합당하게 서선장이란 주인공의 소년시절부터 소설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기에 이 작품은 소년이 자라서 어떤 과정을 거쳐 독립투사가 되는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전기체 성장소설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문학사에서 소실되었거나 있더라도 관념화되었던 독립투쟁의 실체를 문학적으로 복원하였다는 차원에서 보면 「걱정시대」의 뒷부분인 태항산전투를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하겠으나, 여기서는 사료의 일부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소설의 실체를 다루는 것이

11) 김학철, 「걱정시대」 후기, (풀빛, 1988), 305쪽

기에 소설에 나타난 전체적인 갈등 구조를 처음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 이 소설은 전기체 형식으로 기술된 작품이기에 서선장의 성장과정이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서선장의 행적을 따라 그의 갈등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소설은 대략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집니다. 첫부분이 서선장의 유년시절이라 할 수 있는 원산에서 소학교를 졸업하기까지의 체험이고, 둘째부분이 서울에서 보성고보를 다니던 소년기 체험이고, 셋째부분이 중국에서의 독립투쟁의 체험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중국에서의 체험도 단순한 테러활동과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정식 군인이 되어 독립투쟁을 벌린 것을 양분하여 나눌수도 있으나 이를 모두 중국체험에 포함시킨다면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서선장의 유년기 체험은 철부지 소년으로서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 차츰 의식이 성장해 가는 과정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서선장의 의식이 성장하는데는 주위 인물들의 도움이 필요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씨동이, 김영하 선생, 한정희 등입니다. 선장은 씨동에게서 정의감과 사나이 다운 기개를, 김영하 선생에게서는 반일과 민족자존과 자주의식을, 한정희에게서는 계급을 초월한 인간평등 정신을 각각 배웁니다. 씨동이 조난당한 어부들을 폭풍우 속에서 구해주고 한진사가 내건 상금 오십원을 거부하는 장면에서 정의감과 남아다운 기개를 배웠다면, 김영하 선생에게서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유구하다는 점과 그때까지 배운 국사가 일본사임을 자각하는 민족감정을 깨우쳤고, 한정희에게서는 부잣집 아들이면서도 파업을 지원하는 행동에서, 또한 씨동이와의 평등 관계 추구에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년기의 체험은 선장이 계속하여 정의롭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관점을 성숙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선장이 서울에 와서 자기를 도와주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박숙자 아주머니의 안락한 생활을 비판적 시각에서 볼 수 있게 해주고, 또 이로부터 과감히 탈출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이런 어렸을 때의 체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선장이 서울에 와서 숙자 아주머니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도 보성고보에서의 친일파 교장의 배척에 동조하는 것도 이런 의식의 성장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선장이 쉽사리 연 변호사집의 부르조아적 생활에 안주하지 않게 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입

니다. 숙자 아주머니는 선장이가 동맹휴학에 가담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연 변호사나 숙자 아주머니는 친일파는 아닐지 몰라도 일제에 순응하면서 자신의 안일을 추구하는 인물들입니다. 만일 선장이가 원산에서 유년기를 보내지 않았다면, 또한 그에게 씨동이, 김영하 선생, 한정희가 없었다면 그는 쉽게 숙자 아주머니의 호의에 젖어들어 자신의 안일만을 추구하는 인물로 전락하였을 것입니다. 선장이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진실이 무엇인지를 통찰하고 자신의 안일한 생활에 갈등하는 것은 이런 배경적 체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서울에서 다시 만난 김영하 선생과 씨동이의 변함없는 기개가 선장을 더욱 자극하였고, 보성고보에서 반일 학생 운동의 선봉장이었던 김봉구의 행위도 그를 굳건하게 키울 수 있는 촉진제가 되었습니다. 김봉구가 퇴학당하자 학교교육이 친일파를 양성하는 관계교육임을 깨닫고, 때마침 터진 윤봉길 의사의 폭탄 투척 사건에 고무되어, 김영하선생이 말한 중국의 군관학교와 임시정부를 동경하는 것도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선장이가 서울에서 보낸 소년시절의 주된 갈등은 민족운동을 외면하고 안일한 생활에 젖어 편안히 공부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윤봉길의 홍구공원에 서의 폭탄투척 사건을 접하고는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선장은 마침내 자기의 보호자이며 은인이기도 한 숙자 아주머니의 뜻을 저버리고 중국으로 탈출하는데, 이것은 부르조아 생활이 결코 자기가 추구할 진실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추구할 것은 개인이 아니라 개인을 넘어선 민족의 자존에 관한 더 큰 사명이 있음을 깨달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갈등과정을 거쳐 선장은 어린 나이로 중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국으로 탈출 할 때, 선장의 꿈은 임시정부를 찾아가 그에 가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선장을 임시정부로 인도하지 않고 조선민족혁명단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김혜숙을 만나 조선민족혁명단 상해 지하조직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서 서선장은 유년기와 소년기를 거쳐 본격적인 청년기의 행동기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장은 테러활동에 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서는 갈등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임시정부의 실체를 알아보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선장에게는 단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족운동 그 자체가 더 절실한 것이었고 그것만이 유일한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독립을 위해 투쟁할 수 있다면 그것만

으로도 목표는 달성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애국의 열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선장이는 헤로인 밀수를 눈감아 주고 거액의 뇌물을 받아 호화생활을 누리는 신영호를 혼내주고 독립운동자금을 끌어내는 소위 <샤르니까 행동>을 위시해서 많은 테러활동에 가담합니다. 이때 처음에는 살인에 많은 갈등을 느끼나 점차 전사로 성장해 갑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같은 집에 사는 상해 메트로폴리탄 맨서 송일엽과의 육육의 갈등을 느끼기는 하나 이것은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더욱 변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공산주의자 성재수를 만나 그로부터 맑시즘을 본격적으로 배운 것이라 하겠습니다. 선장이는 이때 변증법적유물론, 유물사관 등 혁명서적을 탐독함으로써 비로소 맑스주의에 눈뜨게 됩니다. 이로부터 선장이는 단순한 민족주의자로부터 민중을 발동하여 투쟁을 고취하는 공산주의자를 동경하게 됩니다. 이런 의식의 발전과정을 거쳐 선장이는 중앙육군군관학교에 입학하여 김두봉, 한빈 등 이름난 공산주의자들을 접하며 맑스주의 사상에 진일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선장이의 의식이나 행동에 별다른 갈등이 없이 오로지 정해진 궤도로 순항이 계속됩니다. 선장이가 갈등하게 되는 것은 1936년에 중앙군관학교를 졸업하고 국민당부대에 소대장으로 배치되고 나서 부터입니다. 선장이는 차츰 국민당부대의 내부사정을 알게되면서 국민당부대가 결코 자기가 지향하는 민족운동과 합치되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국민당부대의 무능하고 나약한 면을 발견하고 그에 회의하기 시작합니다. 막부산전투에서 무조건 철수 후퇴한다든가, 장사 철거에서 오류로 불을 질러 멸절한 도시를 불바다로 만든다든가, 군수품을 자체내에서 도적질한다든가 하는 부패의 만연은 물론 근본적으로는 일제를 적으로 여기기 보다는 중국 공산당을 적으로 여겨 일제가 유리한 쪽으로 싸움을 이끌어가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이런 차에 1938년 10월 10일 조선의용대가 한구에서 정식 설립됩니다. 이러던 차 모든 조선의용대가 국민당부대에 회의를 느껴 국민당을 결별하고 해방구로 팔로군에 가담하게 됩니다. 선장이가 팔로군에 편입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갈등이 해소될 지점에 와있음을 의미합니다. 이후 태항산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리는데, 이때에는 오로지 항일 투쟁 그것 자체가, 그 하나만이 목표가 되기에 모든 자잘한 갈등은 반일이란 민족모순 해결에 집약되게 됩니다. 작가가 <후기>에서 밝혔듯, ‘조선의용군의 골간을 이룬 것은 조선적(籍)의 중공당원들이었

다.’는 사실이 해명되었고, 태항산 전투가 체험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다면 작가가 허구의 주인공 선장이를 내세워 추구하였던 진실은 달성된 것이고, 이로써 갈등구조도 같이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이로볼 때 「걱정시대」는 순진한 소년이 계급의식과 민족의식에 눈뜨고, 중국에는 공산주의자로 민족해방전선에 투사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고, 갈등구조도 이에 적합하게 짜여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 평가 및 문학사 편입 문제

위에서 살펴본 연변 조선족 현대소설에 나타난 갈등구조를 통해 다음 몇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갈등구조가 하강구조로 짜여져 있지 않고 상승구조로 짜여져 있다는 점입니다. 「고난의 년대」에서는 간난을 극복하고 주인공이 고향에 돌아오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미래를 기약하며 다시 투쟁을 위해 떠납니다. 「걱정시대」에서는 호가 장전투에서 비록 타격을 입지만 지원군의 지원으로 적군을 퇴치하고 전열을 정비하여 다음에 올 결전을 대비합니다. 바로 이런 상승구조, 혹은 낙관적 결말이 공통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소설의 일반적인 구성의 원리이며, 연변소설도 이런 패턴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일제 강점기에 독립투쟁을 공산당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두 작가 모두 이것을 직접 체험으로 겪었고, 또 현거주지가 중국 땅이고 중국 국적을 갖었음은 물론 정치체제도 공산주의 국가이기에 이해가 가는 점이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공산주의의 일방적 찬양이 되는데, 이것은 작가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고찰한 이광수의 「삼봉이네 집」에서 공산주의가 마지막에 잠시 언급되는 것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하겠습니까. 「삼봉이네 집」이 일제 강점기에 발표된 것임을 참고한다면 이해가 가는 점이라 하겠습니까. 물론 작가는 어느 처지에서나 진실을 말하고 있다하겠으나 지금의 우리 시각으로 보면 당대의 정치적 상황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셋째가 「격정시대」나 「고난의 년대」 모두 만주체험을 극대화하였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허구가 아니라 작가가 직접 체험한 진실을 사실에 가깝게 재구성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점은 바로 남한 문학이 채울 수 없었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북간도」에서 후반부 독립 무장 투쟁이 관념적이어서 소설적 진실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면, 위의 두 소설은 체험적이어서 소설적 진실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특징은 분명히 우리 문학사를 보다 풍성하게, 또 보다 완전히 복원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남북한이 양단되어 문학도 양분된 특징을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경직된 교조적 문학만을 양산하고 있으며, 남한은 다양성이 있는 대신 서구문학의 침윤이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차이에 연변 문학은 사회주의 리얼리즘 소설의 갈등구조를 기본으로 하기에 북한문학과 그런 점에서 공통적인 골격을 공유하며, 남한과는 중국의 개방에 힘입어 문학풍토도 전보다는 자유스러워졌다는 전제하에, 문학의 구원성이란 측면에서 이데올로기의 제약을 뛰어넘는 인간성의 진실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적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연변 문학은 우리 문학의 원형을 보다 순수하게 간직한 처녀림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연변 문학은 앞으로 우리 문학풍토에 새로운 상상력을 불어넣어줄 보고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參 考 文 獻

- 김열규외 지음, 「대륙문학 다시 읽는다」(대륙연구소 출판부, 1992)
- 김영화, 「북간도의 세계」, 〈현대문학〉, 1988. 8.
- 김윤식, 「안수길연구」, (정음사, 1986)
- 김윤식, 「염상섭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 김학철, 「격정시대」, (폴빛, 1988) 김학철, 「무명소졸」, (폴빛, 1989)
- 김학철, 「태항산록」, (대륙연구소 출판부, 1989)
- 김현선, 「재만 한인문학 연구」, 〈국학연구〉 제2집, (국학연구원, 1988)
- 소재영외 지음, 「조선족문학연구」, (송실대출판부, 1992)
- 송하춘, 「연변조선족소설개관」, 〈한국학연구〉 제3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1)
- 연변문학예술연구소, 「김학철론」,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90)
- 이근전, 「고난의 년대」, (세계, 1988)
- 조성일, 권철 주편, 「중국조선족문학사」(연변인민출판사, 1990)
- 채훈, 「재만한국문학연구」, (깊은샘, 1990)
- 한승옥, 「〈북간도〉 3부작 연구」, 〈동서문학〉, 1990. 4.
- 한승옥, 「이광수연구」, (선일문화사, 1984)